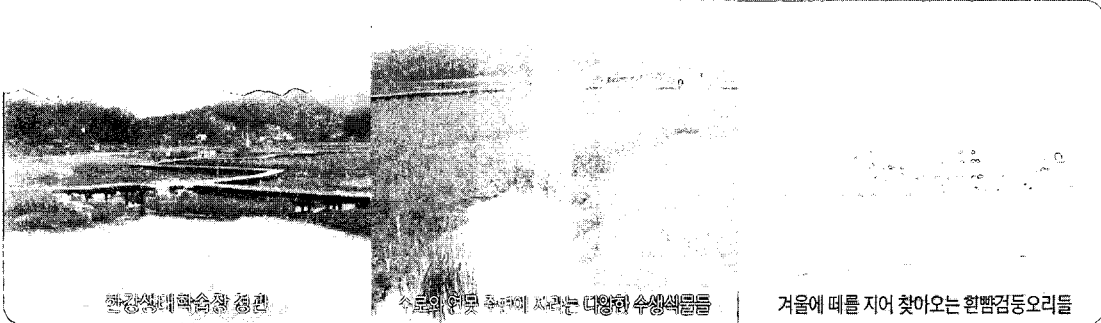


한강생태학습장 생태탐방프로그램 3월부터 운영

한강생태학습장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 파괴되었던 한강 둔치를 버드나무와 갈대 그리고 새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환경보전협회는 올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생태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편집부〉



한강생태학습장 정관

수로와 연못 중간에 서있는 다양한 수생식물들

겨울에 떼를 지어 찾아오는 환뺨검둥오리들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의 생물 서식처가 도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98년 '여의도샛강생태공원', 1999년 '길동자연생태공원'이 만들어진 후 전국적으로 여러 곳의 생태공원, 생태학습장이 조성되었다.

원래의 자연생태가 파괴된 곳에 조성된 생태공원·생태학습장은 생물들의 서식처를 복원하고 이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생태적 조성기법을 도입하여 자연 친이름 유도하고 인위적 관리를 최소화한다.

2002년 12월 준공된 한강생태학습장은 팔당특별종합대책을 통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강하하수증말처리장 아래 골재 채취장으로 이용되던

남한강 둔치를 하천변 습지로 복원한 공간이다. 하수처리장 유출수가 수로와 연못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자연정화 과정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 환경보전협회는 올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생태적 홍보·교육분야에 그간 축적되었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초롱이의 환경세상 등 환경교육 전문프로그램들과의 연계방안도 한층 강화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약 2만평의 한강생태학습장은 보전지구, 완충지구, 탐방지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과 생태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강, 강하하수증말처리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물'을 주제로 하는 생태탐방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